

사무국

The Secretariat

w Millennium Silk Road.



1. 운 영

연합의 사무국은 1996년 창설 이래 2년 임기의 의장단체가 사무국 운영을 병행하는 순회사무국 운영방식을 채택하였다. 이후 연합이 확대·발전함에 따라 순회 사무국운영 방식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회원단체의 공감에 따라, 2004년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개최된 제5차 총회에서 4년 임기제 상설사무국 운영이 합의되었으며, 연임 제한이 없는 가운데 대한민국 경상북도가 상설사무국의 유치를 제안, 합의 되었으며, 운영 예산은 경상북도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나아가 2012년 중국 낭샤후이족자치구에서 개최된 제9차 총회에서는 임기제 상설사무국에서 진일보하여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상북도에 두는 것에 합의함으로서 사무국운영에 있어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2. 재 무

사무국에는 16명의 상근 및 파견인원이 합동 근무를 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연간 US \$100만(한화 11억원/600만 위엔/8,500만엔 상당) 내외에 달하며 대한민국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부담하고 있다.

3. 회비제

연합의 현장에 의거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회비제 도입을 유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창설 이래 연합의 총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 시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최 회원단체가 부담하며 참가 회원단체는 최소한의 참가비를 분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장 비중이 큰 사무국 운영비는 상설사무국 운영제도가 합의되면서 사무국 유치 회원단체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후, 연합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회비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7차·제8차·제9차 총회에 걸쳐 회비제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가 논의키로 하였다.

4. 사무국 직원

	사무총장 김재호			사무처장 김종학	
	기획총무과장 배경진			국제협력과장 구해일	
	오명호 (경상북도파견직원)			안자준 (경상북도파견직원)	
	이혜정 (중국전문위원)			장보양 (중국파견직원)	
	최수규 (일본전문위원)			이케가미 다카하사 (일본 파견직원)	
	르함 히식자르갈 (몽골전문위원)			다와삼보 레르덴빌리그 (몽골 파견직원)	
	최경남 (러시아전문위원)			이반 포노마렌코 (러시아 파견직원)	
	김경실 (영어전문위원)			이희숙 (사무보조/비서)	

